

West Kalimantan

2017년 7월 기도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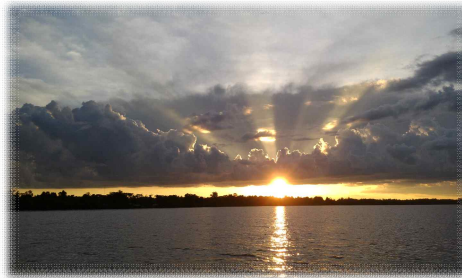
배성현. 이산정. 지온. 승은. 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2주 전에 정글교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배위에서 찍은 석양의 모습입니다. 정글교회 사역으로 지친 몸을 배에 싣고 돌아오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주시곤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빛깔로 채색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적도의 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글교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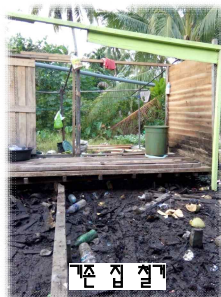
뜨른땅침례교회

지난 7월 9일에 뜨른땅침례교회 청소년들이 폰티아낙을 방문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정글에서만 지내다가 방학을 맞아 폰티아낙을 찾은 청소년들을 위해 이산정 선교사가 한국음식으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제가 말씀으로 섬기며 정글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깔리마스침례교회

깔리마스침례교회는 지난 두 달간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깔리마스침례교회는 약 4년 동안 어떤 그리스도인 한 분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내어준 땅에서 조그마한 집을 지어 예배를 드려왔고, 담임목사님도 그곳에 거주하며 주인의 땅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말에 갑작스럽게 그 집이 팔리면서 즉시 나가달라는 새 주인의 강압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를 알아볼 말미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바람에, 싸라기목사님(담임목사) 가족이 일순간 거리에 나앉게 되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달려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상황은 어려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사실 깔리마스교회는 지난 2007년에 불광동성서침례교회에서 보내준 후원금으로 교회 부지를 구입했지만, 건축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임시 거처에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지금 깔리마스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몇 후원자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교회 부지에 담임목사님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지었고, 지난 7월 9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 집을 철거한 후 나온 자재를 모아서 새로 짓는 집 건축 자재로 활용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제가 찾아갔을 때, 저를 붙잡고 울먹이며 간곡히



기존 집 철거



교회 부지에 집 건축



공사 중인 곳에서 식사하는 싸라기목사 가족

e-mail: 0212bae@hanmail.net / 인터넷전화(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배성현) 우체국 013052-02-169596 (배성현)

배성현·이산정·지은·승은·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부탁하던 성도들의 음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가족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돈은 없지만, 자재만 준비시켜 주시면 저희가 온 몸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저희 몸이 부서져라 일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그들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익히 알고 있기에, 그들의 진심어린 울부짖음에 저도 함께 부둥켜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주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수고한 끝에 임시 거처가 지어졌고, 지난 7월 9일 그곳에서 이전감사예배를, 그리고 7월 24일에는 생일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는 임시 거처가 있는 교회 부지에 가로 6m × 세로 10m 크기의 예배당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용은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공사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기초 공사를 위해 약 300만원 정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중에 있습니다. 이곳 깔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전감사예배



생일예배



교회 부지 앞에서

* 한글 교실 개강 및 시골 지역 교육 개발 사역

한글 교실은 한 달 간의 방학을 마치고 지난 7월 22일에 다시 개강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 학기마다 신입생을 모집했었는데, 이번에는 1단계 신입생을 가르칠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모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무척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속히 새로운 한글 교실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개발사업 설명



간담회 참석인 학부모들



마을 지도자들

지난 7월 7-8일 이들 동안 교육법인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침례교회 성도 몇 명과 함께 폰티아낙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빠꾸찡(Pakucing)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부칼리만탄 시골에 사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수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방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개발사역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범지역의 하나인 “빠꾸찡(Pakucing) 지역”에서 가졌던 초등학생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역시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을 이장과 관계자들도 매우 흡족해하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 나중에 폰티아낙으로 공부를 하러 오게 될 시골

e-mail: 0212bae@hanmail.net / 인터넷전화(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배성현) 우체국 013052-02-169596 (배성현)

배성현.이산정.지온.승은.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청소년 및 청년들이 임마누엘침례교회에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한 여러 필요들이 많은데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 긴급기도제목: 임마누엘침례교회 예배당과 한글 교실 사역을 위한 장소 임대

지난 7월초에 현재 예배당과 한글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재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계약이 끝나면 바로 나가달라는 통보였습니다. 다행히 계약 만료는 10월말까지라서 아직 여유는 있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년마다 예배당을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써 세 번째 벌어지게 됐는데, 임마누엘침례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참에 예배당과 한글 교실을 분리하려고 생각 중인데, 예배당 1년 임대비(350~400만원)와 한글 교실 장소 1년 임대비(250~300만원 예상)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 이야기

많은 분들의 기도의 후원 덕분에 지난 6월 9일에 비자 연장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17일부터 지온, 승은, 승우 삼남매는 각각 3학년, 2학년, 1학년이 되어서 셋이 함께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질수록 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럴수록 위대한 일을 이루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이곳 적도의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가정 드림

기도에 주시요

1. 임마누엘침례교회 예배당과 한글교실 사역을 위한 장소가 구해지고, 장소 임대를 위한 비용(700만원)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팔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비용(1500만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임마누엘침례교회 사역을 함께 할 좋은 목회자가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매주 진행되는 설교 준비와 한국어 강의 준비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한국어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새로 시작된 시골 지역 교육개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후원교회 및 후원자가 계속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가족의 건강, 그리고 세 학년을 맞이한 지온, 승은, 승우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직과 지에가 자라나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